

금동대향로를 보고 온 일

박채유

부모님께서 자고있던 나를 깨우시느고는 나가자고 하셨습니다.
나는 얼떨결에 씻고 나갈준비를 했다.
차를 타고 음료수를 사서 부여로 갔다.
원래는 옷을 사러 나간 것 이었지만 재미없을 것 같아서 백제
박물관에 간 일을 썼다. 만족한 쇼핑을 하고 난 후 옆에 백제
박물관이 있길래 가려고 했지만 아빠께서 극구 반대를 하셔서
때를 써 겨우 갔다.

백제 박물관에 들어가니 신이 났었다. 박물관에 간 건
오랜만이라 더 신났었던 것 같다.
그곳에 엄청 큰 향아리도있었고 치미도 있었다. 사회시간에
배운게 줄줄이 나오니 신기했다. 백제의 불교문화도 볼 수
있었는데 불교 석상과 같은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
교회다니는 사람이라 찍지는 못했다.
방들이 있었는데 금동대향로라고 써 있길래 들어갔더니 엄청
멋있었다. 사회시간에 배운 것 과 똑같이 생겨서 더욱 신기했다.
보자마자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는데 멋지게 나오진 않았다.
보고싶은 것을 봤으니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.
박물관을 나와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갔다.
재미있는 하루였다.